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0월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 행안부 개발 음성분석모델, 국과수 이어 이달부터 전국 경찰 사용 개시
- 수사현장에서 혐의자와 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신속한 수사절차 진행 기대
- 하반기, 수사기관 관계자들 대상 음성 분석 역량 강화 집중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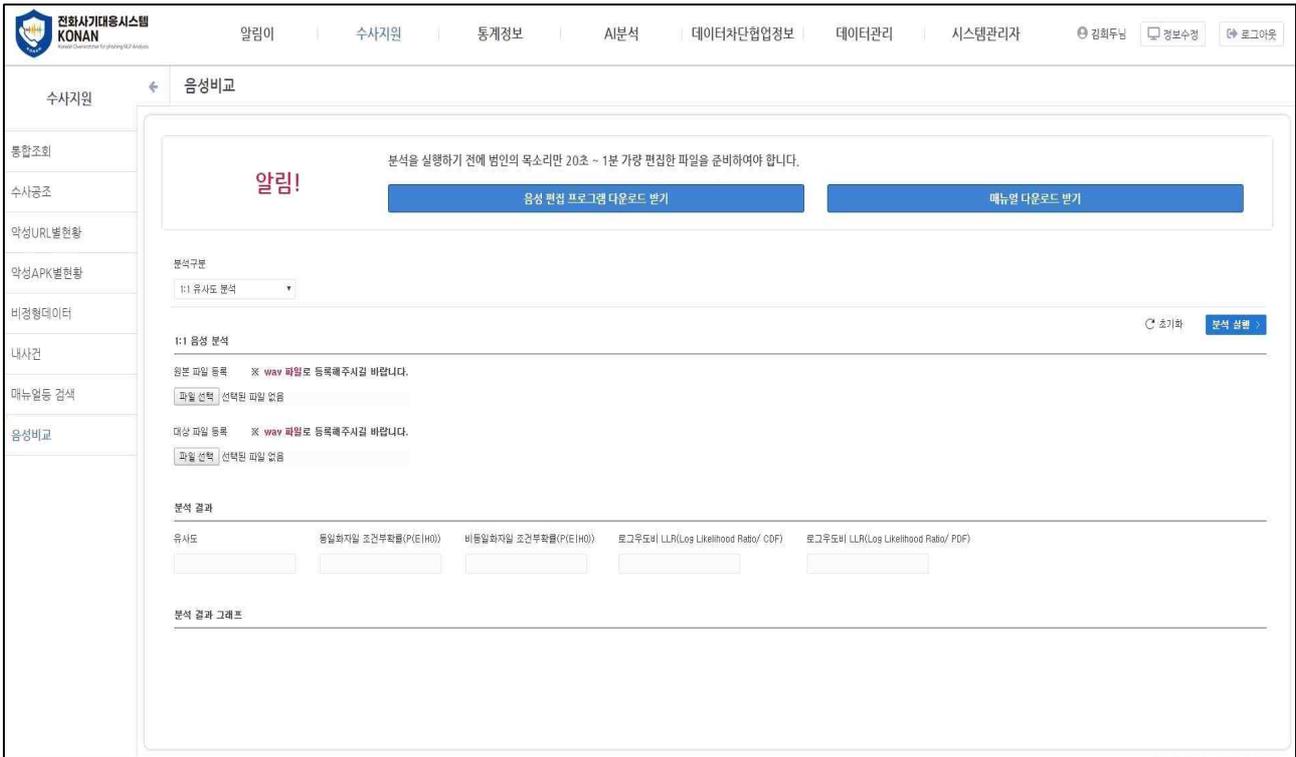
-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목)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과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 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 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 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이 사용하게 되는 음성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 2월 말부터 본 모델을 활용해온 국과수는 9월까지 78건의 사건(전년대비 66% 증가)에 대한 다양한 음성감정을 실시하여 경찰 등 수사에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한 바 있다.
- 한편, 행안부는 수사현장에서 본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실무 교육 과정’도 확대·운영한다.
- 우선, 11월중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대상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실무교육과정을 연 2회 정기교육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 앞서 지난 7월에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석모델 사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 철 (044-205-2281)
		담당자	주무관	최지현 (044-205-229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책임자	과 장	변준석 (033-902-5310)
		담당자	연구관	전옥엽 (033-902-5336)



< 준비화면 >



< 실행결과 >

